

설의

배플 設 의심할 疑

누구나 알 수 있는 생각이나 정서를 의문형 종결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는 수사 기법
궁금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의문문
강조하기

<실제 선지>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고3
2109 38번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3 2109
43번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고3 20수능
34번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고3
20수능 43번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고3 2009 17
번

의문형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고3 1909 16번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고3 1906 28번

<판단의 기준점>

내가 구세주임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반어의문문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하나- 갈 곳이 없다 명확한 답변이 있는 것

가난아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볼 것이냐 -혼잣말, 문답의 구조 모두 가능

<설명>

의문문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 수사의문문이 특히 반어와 감탄이

설의와 연결된다

너는 어디서 왔니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의문문

너는 학생이니 같은 예 아니요의 답을 요구하는 판정의문문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은 의문문이 아닌 수사문의문문이 있다

수사 의문문의 경우에는 반어, 감탄, 명령, 금지 권고 등의 의미를 지니며

몰라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ex)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공부할까, 돌아가지 못할까, 얼마나 좋을까

ex) 생평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하면 금수 1 나 다르리아- 금수와 다르지 않다.

설의적 표현

설의의 경우에는 수사 의문문 중 반어 감탄과 확실하게 연결되고

다른 부분도 넓게 보면 설의적 의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점에서 주의할 부분은

몰라서 질문하는 부분 즉 확실한 단순 의문 중결을 제외하는 것이며

가난아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볼 것이냐 같은 혼잣말의 하소연 등은 설의적 의문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진짜 언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며 그만 쫓아오라는 확실한 생각 나름의 답변을

가지고 있다

<기출0x>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짐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늪들은 운는다 혼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이는 내 분(分)인가 혼노라 <제1수>

보리밥 뜻는 물을 알마초 머군 후(後)에

바윗 곳 물그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를 보라보니

그리던 냇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음도 아녀도 못내 묘하 혼노라 <제3수>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혼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라

이제르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뚝더라

아마도 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극실사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혼 알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득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히라 혼시도다 <제5수>

강산이 묘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언느나

넉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혼야도 히올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세넷짚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㉔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03 2109 38번 (0 x)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향환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옥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며,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3 2109

43번 (0 x)

동녘 두던 밭과 크나큰 너분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흰 밭치 되야 있다

중양이 거의로다 내노리 흐 자스라

블근 게 여물고 눈은 들기 슬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뱃슬쇼냐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더 가노매라

살여를 긴 몰래예 밤불이 불가시니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있고

호두포* 엔 귀의예 아적물이 미러오니

뚝든 비 애내성(歛乃聲)이 고기 푸는 당식*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리로오라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리로오라'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고3 20수능 22번(0 x)

[A]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벼락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든,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남군을 배어아가 위세로서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겠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귀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리러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 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지, 어머니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었다면 남군

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B]

“남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남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귀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택에 들어온 지 오륙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님, 어머님과 남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외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물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웁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려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웁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사웁니다.”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고3 20수능 34번 (O X)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고3
20수능 43번(O X)

이곡은 이디미오 화암에 훈만커다

벽파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멋더리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고3 2009 17
번(O X)

(가)성평에 원하나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트리야

마음에 하고져 하야 십재항항하노라 <제1수>

계교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귀동남하야 여공불급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나 못이룰까 하야라 <제2수>

강호에 놀자하니 성주를 버리겄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략에 어긋나네

호운자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

명철군자는 이룰사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 | 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라

산지남 수지복 병들고 늙은 나를

누라서 회보미방하니 오라 말라 하노는 <제16수>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에 한가지라

은커나 현커나 도 어찌 다르리

일도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더리 <제 17수>

십재항항: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계교: 견주어 헤아림

부급동남: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여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리췌하듯 함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회보미방: 뛰어난 능력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환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현: 세상에 나아가감

-권문호, 한겨레신문

(나)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엄머야 울엄머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꿀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세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더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성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박재삼, 추억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고3 1909 16번(0 x)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민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흐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새싹새싹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 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 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별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열매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별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민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흐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병우, 휴전선 -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고3 1906 28번 (0 x)

<반란>

의문문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 ()이 특히 반어와 감탄이

설의와 연결된다

너는 어디서 왔니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의문문

너는 학생이니 같은 예 아니요의 답을 요구하는 판정의문문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은 의문문이 아닌 ()이 있다

수사 의문문의 경우에는 () 등의 의미를 지니며

()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ex)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공부할까, 돌아가지 못할까, 얼마나 좋을까

ex) 생명이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 1 나 다르리야- 금수와 다르지 않다.

설의적 표현

설의의 경우에는 수사 의문문 중 ()과 확실하게 연결되고

다른 부분도 넓게 보면 설의적 의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점에서 주의할 부분은

몰라서 질문하는 부분 즉 확실한 단순 의문 종결을 제외하는 것이며

가난아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볼 것이냐 같은 () 등은 설의적 의문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진짜 언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며 그만 쫓아오라는 ()을

가지고 있다

<정답>

-반어-

수사의문문

수사의문문

반어 감탄 금지 권고 명령

모르고 궁금해서

반어, 감탄

혼잣말의 하소연

확실한 생각 나름의 답변

-OX-

설의적 표현이란 확실한 생각과 정서를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반어의문문 감탄의문문 등 답변이 명백한 의문문과 하소연 등의 혼잣말이 기준이며 여기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것도 설의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정서를 강조하는 하소연과 관련하여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나는 왜 이럴까 등의 경우 진짜 궁금해서 즉 진짜 답변을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선적으로는 의문형 종결로만 이해해야 한다. 위 글에서는 우선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라는 구절에서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러울 줄이 없다는 반어의문문이자 설의법으로 의문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도다 같은 감탄형 어미가 사용되었기에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2수의 의문 해결과는 연관이 없다.

x-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에서 의문형 종결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영은 죽어있다는 화자의 안타까운 인식을 드러내는 설의적 표현이며 이러한 표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의문형 종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반어 감탄 등 명백한 답변이 있는데 의문으로 제시하는 경우, 혼잣말로 한탄하는 경우, 자문자답하는 경우 정도를 설의적 의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하소연 즉 영탄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데 화자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경우와 하소연 즉 영탄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나는 왜 이럴까의 경우에는 혼잣말로 하소연하는 것일수도 있고 타인에게 진짜 물어보는 것일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의문형 종결로 우선 보자.

x- 생리가 리콕지 않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는 내용을 의문형으로 제시하여 강조의 효과를 드러낸다, 따라서 설의적 표현은 맞으나 생명의 고단함이라는 내용이 틀려서 거짓이다.

o- 우선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양귀를 배앓아가 위세로서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였는가 어찌 알리오 어이 될고 등의 의문형 종결이 드러나 있으며 혼잣말로 하소연 하거나, 알 수가 없다 등 명확한 답변을 보여주는 설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어찌 구태여 배앓아가는가와 어이 될고 등의 하소연은 그 자체로는 화자가 답을 모르고 답변을 요구하는 일반적 의문문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뒤 부분에서도 의문형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원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x- 우선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내적 고뇌를 통해서 우리는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찰과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단정한다고 할 수 없다.

o- 설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형 종결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어떨까”라고 묻고 있기에 이는 참이다

o- 가에는 설의가 나에는 의문형 종결이 등장하며 이를 볼 때 둘 다 의문형 어미가 등장함을 알 수 있다. 가에서는 다르리아 하오리라 어찌 다르리 하느뇨 등은 모두 설의적 의문으로 볼 수 있으며 나에서의 한이던가 등의 표현은 모두 의문형 종결로 이해할 수 있다.

o- 우선 가에는 설의법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반의적 설의법으로 드러나며 이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다만 1연과 5연 이외에도 각연의 종결부분에서 설의법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정리한 설의의 개념을 복습할 필요가 있다

설의는 확실한 생각과 정서를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반의의문문, 감탄의문문, 혼잣말로 하소연하는 것 등 명확한 답변이 있는 것 즉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명확한 답변은 또 모 르겠는 것이 그것이다. “나는 언제까지 가난해야 하는가.” 같은 문장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

며 쉽게 구체적인 답변이 딱 떠오르지 않는 점에서 의문 같은데 동시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닌 것 같기에 설의 같기도 한 부분이다. 이렇게 궁금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은 고민해보면 혼잣말의 하소연이나 나름의 답변 등 설의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많기에 우선 설의로 넣고 설의가 아닌 의문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기억하자. 우선 앞선 예시는 혼잣말로 하소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제는 그만큼 가난하고 심다는 생각을 의문문으로 강조한 것으로도 읽어낼 수 있다,

실제 시험에 등장하고 다른 해설지에도 등장하는 것은 명백한 기준인 반어인 10권과 50권이다, 이제 문제는 교과서 해설에 등장한 각 연의 종결어미는 명확한 답변을 가진 설의법이라는 설명에 맞춰 234권의 종결도 설의법으로 보면 결국 혼잣말의 하소연과 반어 등에 맞춰서 지금과 같아서는 안된다는 화자의 생각이 강조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